

이춘식 옹도 결국 제3자 변제 수용...장남 반발 "취소 논의"

장남 "아버지 노환·섬망증으로 정상적 의사 소통 어려운 상황" 의문 제기 가족들 수령...양금덕 할머니 이어 강제동원 시민운동 구심점 잃을 수도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재단)이 이춘식(100)할아버지 측에 일명 '제3자 변제금'을 지급했다.

이 할아버지 측이 변제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다"며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제강제동원과 관련해 피해자 보상운동을 대표하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가 잇따라 변제금을 수용함에 따라 일제강제동원 시민 운동의 구심점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0일 외교부와 재단 등에 따르면 이날 재단은 이 할아버지 측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해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기업을 빼고 재단을 꾸려 돈을 마련해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보상안을 내놓자 수용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변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제금 수령 절차는 이 할아버지 가족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인 창환 씨는 이날 직접 "아버지가 변제안을 수용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창환씨는 이날 오후 서울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은)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 등으로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버지가 스스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제동원지원재단에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환씨는 이어 "신속하게 형제들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누가 서명한 것이고 누가 돈을 수령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창환씨 동생들이 현재 창환씨의 연락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서울에 살고 있는 창환씨가 광주로 내려와 형제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할아버지가 변제금을 수용하기 전 양금덕(95) 할머니 변제금 수령시에도 비슷한 의문이 제기됐었다.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도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일제 전범기업)가 사죄하고 돈도 줘야 한다. 다른 사람이 준다면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강한 거부의사를 표시했었다.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금(1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국내 상법 2권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았고 대법원의 강제매각 명령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양 할머니는 지난해 5월부터 노환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했고, 치매 판정을 받은 뒤인 11월부터는 외부 활동을 중단한 채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머물고 있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

은 할머니의 간병·의료비가 부담된다는 가족들의 요청을 받아 당시 3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이사장이 광주를 찾아 양 할머

니 가족을 만나 제3자 변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재단측 관계자가 광주를 방문해 양 할머니의 가족들과 제3자 변제에 합의키로 한 것으로 안다"며 "양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거듭 부탁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쳤다"고 했다.

이어 "할머니는 지병으로 의사결정이나 표현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판결금 수령이 온전히 할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23일 시민모임 관계자는 양 할머니를 방문했으나 대화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양 할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된 상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양 할머니 가족은 시민모임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를 계속 설득했고 '니를 뜻대로 해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족의 선택으로 변제금을 수용함에 따라 광주를 중심으로 일제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의 방향 재설정 필요해 보인다.

이날 시민모임 측은 "생생 당사자의 법률적 행사는 오직 당사자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정상적 인지능이 없는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법률 대리인을 배제하고 위법적 수단을 통해 무리하게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안전기준 미적용 시설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생 '안타까운 참변'

홀로 작업하다 사고 '안전 사각'

초등학생이 하포길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후진하던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해당 폐기물 수거 차량은 환경부의 안전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업체였다.

3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에 초등생 A(7)양이 치여 숨

졌다.

A양은 후진하던 수거 차량 뒤를 걸어가다가 치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차량에는 후방영상장치는 설치돼 있었지만, 후방 경고음 센서 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 B(49)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사고당시 운전자 B씨 홀로 모든 수거작

업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해당 업체는 사고가 난 아파트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시설 업체다.

시설업체는 환경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 라인에는 청소수거는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후방영상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1인 작업, 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시등 미설치 등이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자체에 신고하면 업체운영이 가능할 뿐 법적 안전의무 대상이 아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정준호 의원 첫 재판서 불법 홍보 등 혐의 전면 부인

불법전화방 운영과 보좌관 채용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오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 의원은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의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에게 급여로 168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도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되면 "말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경선 당시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 유력한 상황에서 전화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다"며 "다른 피고들에게 홍보원을 모집하라고 지시한 바 없고,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원에게 금품을 부당 지급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선거 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벌인 것이고,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경선에서부터 변제요청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는 점만 보더라도 당선 후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도시재생사업 뇌물 전직 공무원·건설업자 등 구속 기소

검찰이 여수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수억원의 금품 등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길)와 수사과(수사과장 김용주)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노후 주택 등 개량·수리사업)과 관련해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전 여수시 도시재생과 공무원 A(52)씨와 건설업자 B(55)·C(여·57)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께 도시재생사업 담당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B·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억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허위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를 속여 결제를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임야를 시세(공시지가 기준 270만원)의 100배가 넘는 가격인 3억원에 B·C가 운

영하는 법인에 팔고 정상 거래처럼 매매대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들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해 여수시 등으로부터 약 14억원의 선급금을 받아 뇌물을 건네거나 아파트, 외제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일부 사업이 2년간 지체되는 등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의 범행은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가족과 다투다 자기집 불질러

술에 취해 가족과 말다툼을 하다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0일 50대 중반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

동의 자기 집 아파트 화장실에 딸의 옷가지를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길에 놀란 A씨가 사위기로 즉시 진화해 불은 3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가족과 말다툼을 하다 딸이 집을 나가버리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햇살론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